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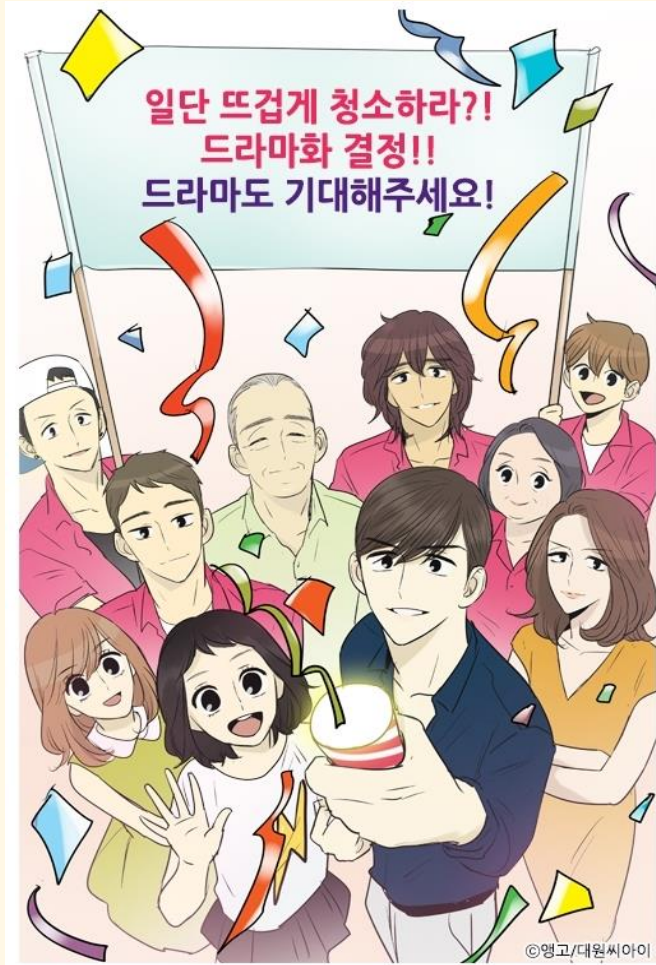
JTBC 월화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프로그램 협찬 제안서



개요



제 목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방 송

2018년 4월 2일 첫방송 예정(16부작)

편 성

JTBC 월화드라마 PM 11:00~

장 르

로맨스/코미디/청춘/치유/가족

연 출

노종찬 감독
(JTBC 궁중잔혹사, 인수대비, MBC 김수로, 개인의취향, 에어시티)

극 본

한희정 작가
(KBS 내마음의 꽃비, 조선총잡이, 드라마스페셜)

줄거리

청소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과 외모를 겸비한
결벽증을 앓고 있는 남자가 더러움을 달고 사는
해맑은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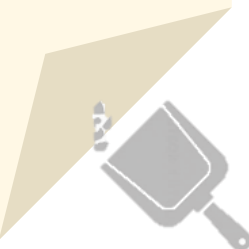


가상캐스팅으로 회자되었던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의 본격 드라마화

네이버,카카오페이지 연재 인기 랭킹 1위작

한국,중국,일본의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

입증 받은 스토리와 탄탄한 구성 및 캐스팅으로 재탄생 예정!!





제작사소개



| 오형제 <제작 드라마>

| 드라마하우스 <제작 드라마>



JTBC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2018 방영 예정



KBS 드라마
<7일의 왕비>
2017



JTBC 드라마
<청춘시대2>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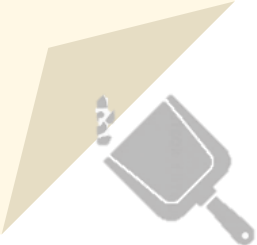
JTBC 드라마
<욱씨남정기>
2016



JTBC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
2015



JTBC 드라마
<밀회>
2014





*** 왜 청소인가? ***

청소: 명사,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주로 어지럽혀진 집 안을 치우는 데 쓰이는 청소라는 단어에는 많은 중의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청소 회사는 1차적 의미의 청소 회사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1차적 의미의 청소를 통해 결국 깨닫게 되는 건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청소, 즉 치유와 성장이다.





1. 극과 극의 로맨스 드라마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남녀가 결국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 드라마는 결벽증 남자와 더러운 여자,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로맨스 드라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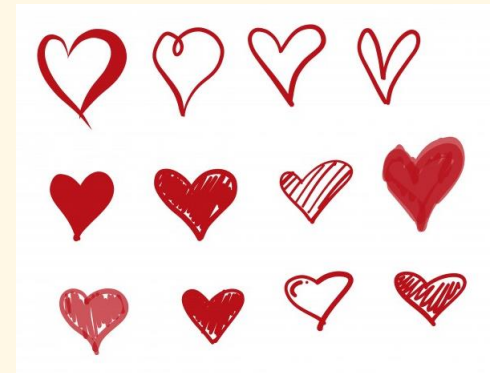
더러운 여자

Vs.



결벽증 남자

=





2. 청춘 치유 드라마

저 숲의 나뭇잎 중 흔들리지 않는 잎이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각자의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산다.
이 드라마 속 인물들도 그렇다.

완벽하지만 강박증이라는 자기만의 세상에 사로잡힌 남자 장선결과
딱딱한 현실 앞에 꿈조차 잊은 지 오래인 20대 취준생 길오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며 자신의 마음까지 치유 받는 괴짜 닥터 최군.
그리고 최군의 다양한 환자들과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청소의 요정에 모인 꽃미남 청춘들까지.

*각자가 짊어진 상처의 크기는 달라도,
고민의 무게는 달라도, 아픔의 크기 만큼은 다르지 않은 법.*

드라마 속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진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다면.*





3. 가족 드라마

취업에 실패하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400미터 허들 경기처럼 경쟁과 장애물로 가득 찰 때
우리를 감싸 주는 건 역시 가족 뿐.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장 잔인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물 불 가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 주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아닌지.

이 드라마 속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두 가족이 등장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원망하는 선결의 가족과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애뜻한 오솔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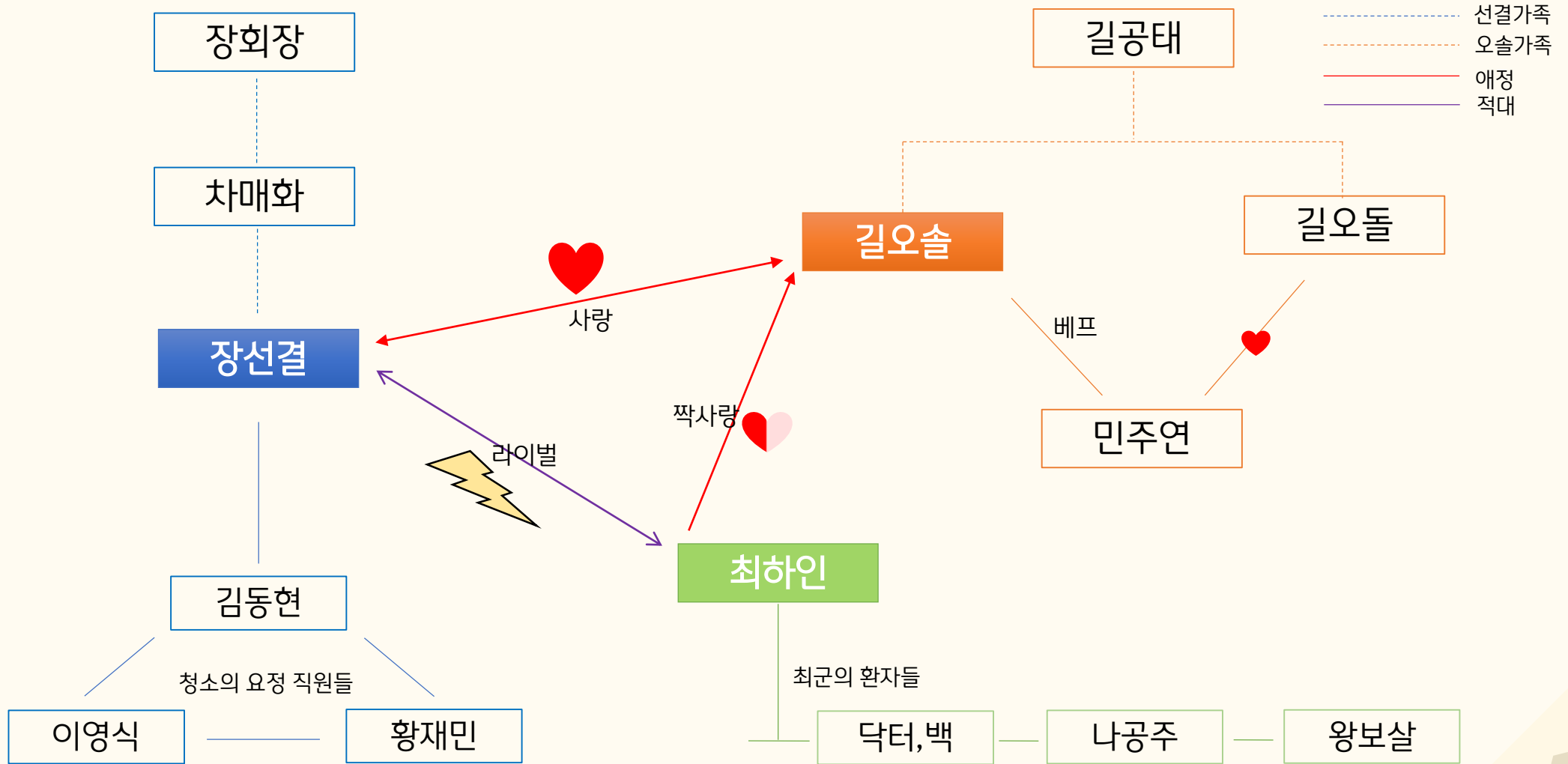
그들의 걸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저 밑바닥엔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 뿐.

이 드라마는 로맨스 드라마인 동시에 청춘 드라마,
그리고 힘겹고 외로울 때 투정도 하고 기댈 수도 있는 우리들,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다.





인물관계도





인물소개



길오솔役 김유정

(25세, 취준생)

#길오솔에게 청소란?

다 오르면 다시 내려와야 하는 등산처럼
치우고 나면 금방 다시 더러워지는 무의미한 일

“내가 게을러서 안 씻는 게 아니야. 지금 나한테 씻는 것도 사치란 말야.”

부스스 정돈 안 된 머리, 만년 교복이 된 무릎 나온 추리닝,
라면 국물, 김치 국물 튼 티셔츠. 여자이기를,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취업 준비생 3년차.

IN 서울은 하지 못했지만 수도권 내 대학 나왔고
어학연수는 다녀오지 못했지만 토익 학원은 열심히 다녔고
자격증은 없지만 실무에는 강한...
요즘 같은 세상에선 좀처럼 인정받기 힘든 스펙의 소유자.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만 해도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 입사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그저 서류가슴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그래서 면접 볼 기회라도 얻고 싶은 절박한 청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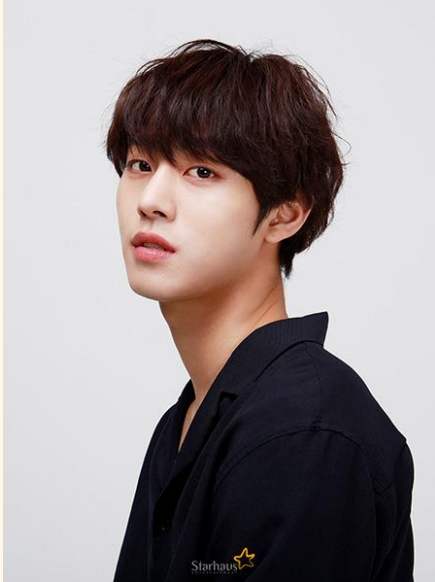
올해는 꼭 취업에 성공하리라, 이 악물고 박센 생활을 해내고 있는 오솔에게
청소 용역 소속 비정규직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다가온 계약 연장 건으로 가만히 누워 있을 수만은 없게 된 아버지를 대신해
오솔은 사흘간만 환경 미화원 일을 하게 된다.

그때 까지만 해도 오솔은 몰랐다.
자신이 이 악연을 물고 오는 남자의 청소 회사에 취업하게 될 줄은.
그리고 이 병적으로 꿈을 떠는 남자와 지독히 괴상한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은, 더더욱 말이다.





인물소개



장선결

(27세, 청소의요정 대표)

#장선결에게 청소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
나아가 전 인류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깨끗이
만들어낼 숭고한 행위

꽃미남 청소 업체로 유명한 청소의 요정, 20대 젊은 CEO.

준수한 외모, 훌륭한 기력지, 거기에 자수성가형 젊은 CEO라는 타이틀까지 붙으며
각종 매스컴이나 강단에서 섭외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대세남이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병리학적 학명 **mysophobia** 다시 말해 ‘**불결 공포증**’

아주 어릴 적부터 청결에 대해서라면 유난스러울 정도로 신경을 쓰던
자신의 결벽을 긍정적으로 승화 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일환으로 곧바로 청소 회사 설립에 돌입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과의 터치, 스킨십 따위에 질겁한다.
장갑과 소독제는 그의 필수품.
덕분에 제대로 된 연애도, 인간관계도 맺어 본 적이 없다.
가족 또한 예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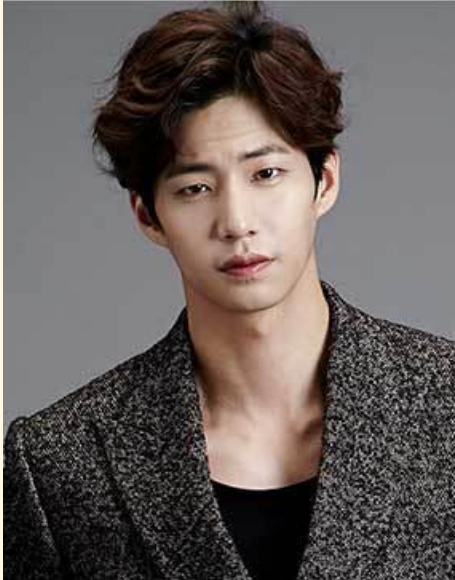
모종의 사건으로 자신과 정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된다.
더럽고 칠칠 맞은 걸로도 모자라 감정 표현에 한 없이 솔직해 당황스러울 정도인 이 여자.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해대는 이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선결 가슴의 빗장을 열고, 강박으로 가득 찬 세상을 깨부수고 있는데...





인물소개



최군 (최하인)

(32세, 백수? 점쟁이? 의사!)

#최군에게 청소란?

사랑의 마음 속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

백수의 외피를 쓴, 신경정신과 닥터

오솔의 집 옥탑에 살고 있는 청년.
허우대는 멀쩡, 아니 흰칠한데 해 다니는 꼴은 딱 동네 백수 형이다.
쭈쭈바 쪽쪽 빨고 만화책 옆에 끼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데 저 동네 백수 의외로 바쁜 일상을 보낸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미친(?) 사람들이 최군의 옥탑을 자주 드나든다.
하루는 인사이드 아웃에나 나올법한 슬픔이 같은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나오고
또 다른 하루는 히스테릭한 중년의 여자가
또 다른 하루는 도사 같은 남자가.

처음엔 그의 성적 취향이 변태적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엔 젊은 점쟁인가 했는데
가만보니 다들 그를 닥터 최라고 부른다.
닥터? 의사인가? 저 동네 백수 쪼잔한 팔푼이가? 무허가 의사 뭐 그런건가?

오솔 아버지와 내기 장기를 두며 친분을 톡톡히 쌓더니
어느 날은 집에 와서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오돌이 공부도 봐주는 등 오지랖이 태평양이다.

한 번씩 멀끔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간 숨겨둔 멋짐들이 폭발해
뭇여성들 눈 돌아가게 만드는 훈남 오빠.





인물소개



길공태

(50세, 오솔의 아버지)

#길공태에게 청소란?

밥 먹고, 똥 싸고, 사랑하고, 늙어가는 것처럼
삶의 일부와도 같은 것.

구청 용역 소속 환경 미화원.

7년 전 사고로 아내를 보내고 홀로 오솔과 오돌 남매를 키워왔다.
요즘은 환경 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지만 그것도 다 정규직 구청 소속들이나 두고 하는 소리다.
200도 안 되는 월급에 각종 쓰레기에 오물 처리 담당,
일 끝내고 씻을 수 있는 샤워실조차 조성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 현실.

그래도 이 일이나마 할 수 있어 지금껏 오솔과 오돌을 이만큼 키웠는지 모른다.
어차피 오물을 치우는 일이나, 오물 같은 인간을 상대하는 일이나,
세상의 일들이란 그런 것이니까.

무심한 듯 말은 하지만 번번이 취업에 낙방하는 딸이 안쓰럽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 애비 때문인가 싶어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큰 욕심 없이 무슨 일이든 저 좋은 일이면 된다 싶었는데 뜬금없이 청소 회사라니.

보고 배운 게 청소부 애비라 그런가 자책감이 들기도 잠시,
그래도 젊은 애들이 다니는 회사라니 지켜보려 하는데,
오솔이가 다닌다는 그 회사 대표가 오솔 엄마 사고를 일으킨 건설 회사의 손자란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사람 목숨 알기를 껌 값으로 아는 회사의 핏줄이 있는 곳에 더 이상 오솔을 있게 하고 싶지 않다.





인물소개



길오돌

(18세, 오솔의 남동생)

#길오돌에게 청소란?

학교에선 절대 하지 않지만 집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복종해야만 하는 누나의 명령

태몽이 오색빛깔 예쁜 돌을 주었다해서 이름이 오돌

차라리 오석이라고 하면 나왔을 텐데 닭발도 아니고 오돌뼈도 아니고 길오돌이라니.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오돌뼈란 별명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주먹은 차돌같다.
공부는 못하지만 의리는 있고,
철딱서니는 없지만 마음은 여리다.
아버지 직업을 쪽팔려하고 누나 알기를 똥으로 알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한다.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 어린지라
누나 오솔에게 대들다가 옥탑방 최군에게 매일 터진다. (물론 누나에게도 터진다.)
지가 뭔데 날 평가해? 덤비다가 또 터진다. 제법 썩 형이다... 누나와 한판 붙여보고 싶다.

후에 오솔이 선결과 최군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빠지면 자신이 대신 갈등한다.
(왜냐고? 내 매형 될 사람이니까!)

오솔 때문에 연상은 지긋지긋 했으나 어느 순간 오솔의 친구 주연이 여자로 보인다.
그래 길오돌, 단단히 미쳤다... 그래도 이 말은 꼭 하련다.

“ 누나 내꺼하자!! ”





인물소개



민주연

(25세, 오솔의 베프)

#민주연에게 청소란?

남편 잘 만나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치워줄 수 있는 부의 상징.

여자의 인생이란? 취업성공 = 인생성공

남자 잘 만나 사모님 소리 들으며 문화센터에 다니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인물로
입이 걸고, 술 먹으면 개가 되는 무서운 언니지만
목표남 앞에서는 천상여자, 조신하고 내숭 100단의 여우로 둔갑하는 둔갑술을 지니고 있다.

오솔과는 여중, 여고, 대학까지 함께 다닌,
남자로 치면 부랄친구 같은 사이로 어린 시절부터 오솔의 집을 드나들며 지낸 덕에
오솔과 일곱 살이나 차이나는 오들의 성장과정을 그대로 지켜봤다.

언제나 오들을 보며 하는 말은 “길오돌, 너 누나한테 잘해라. 내가 임마 너 업고 키웠어 짜샤...”
“어릴 땐 꼬추도 요맨~했는데. 좀 컸냐?” 라며 성희롱을 일삼는다.

그런데. 그렇게 놀려 먹던 자식이 어느새 남자로 자라 남자 짓을 하려고 한다.
이게 미쳤나... 아니, 내가 미쳤나... 코 찢찢이 길오돌이...

평생 사모님 소리 듣게는 못해 줄 것 같은 저 꼬꼬마가 남자로 보이다니.

민주연 정신 차려!!





인물소개



차매화

(47세, 선결의 어머니)

#차매화에게 청소란?

지긋지긋한 아들의 결벽과 같은 것

열아홉에 덜컥 선결을 임신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으나 아버지 장회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 미혼모의 몸으로 선결을 낳자마자 반강제적으로 유학을 떠났다.

1년에 한두 번 선결을 보기는 했으나 쯤 한 번 제대로 물린 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엄마로서 자격이 없음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돌이켜 보니 이걸 다 아버지 때문인 것만 같다. 그때 선결과 자신을 생이별 시키지만 않았다면. 아니, 그때 선결 아빠와 자신을 결혼 시켰다면...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오십이면 지천명이라고 하늘의 이치를 안다고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오십이 가까워 올수록 어찌된 게 점점 철부지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이제와 늙은 아비에게 따박따박 대들고 반항하고 상처 주며 내 상처를 외면한다. 하지만 매화 자신도 다 알고 있다. 그 시절, 자신도 두려웠었다는 걸.

그 두려움을 아버지가 읽고 길을 터 준 것이라는 걸. 충분히 거역할 수 있던 일들을 사실은 자신이 더 원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그래도 아버지에게 화풀이라도 해야지 그 바보 같은 결정들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괜히 그러고 있다는 걸.

관리를 잘 받은 덕에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모르는 사람은 선결의 큰 누나 정도로 볼 정도.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남성 편력이 심해 매일 남자를 바꾸는 게 일상이다.

뒤늦게 선결 앞에서 엄마 노릇을 하려면 할수록 아들 선결과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엄마로서 아들의 앞길을 막는 저 결벽증만큼은 꼭 고쳐주고 싶다.





인물소개



장회장

(70세, 선결의 외할아버지)

#장회장에게 청소란?

내 앞을 맞아서는 것은 모두 쓸어버리는 것

군인출신, 불도저 같은 성격으로
건축업계 대부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

긴 말 않고 딱딱 자기 할 말만 한다.
그래서 더 무섭고 무뚝뚝하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잔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남 앞에선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내색하는 법이 없다.
그것이 군인의 길이고, 오너의 길이라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젠 나도 늙었는지 자꾸 직원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눌러온 감정들이 불쑥 치받친다.

무남독녀 외동딸 매화가 아버지 때문에 미혼모가 되고,
아버지 때문에 아들 선결이 결벽증에 걸린 거라며 딱박딱박 쏘아 댈 때는 더 참을 수가 없다.

선결의 결벽이 약해 빠진 정신력 탓이라고 말하지만 내심 자기 때문인가 싶어 마음이 쓰인다.

7년 전 재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오솔의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인물소개

*청소의 요정 직원들



김동현

(26세, 청소의 요정 직원)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전설의 주먹, 10대 시절 사고 많이 치고 다녔다. 소년원에 있는 동안 동현을 키워 주신 할머니가 고독사 하자 죄책감에 시달린다. 소년원시절 봉사 온 최군을 만나 갱생. 출소 후 새벽 아파트 세차 알바와 계단 청소 등을 하다가 청소의 요정에 입사 했다.
과묵한 성격. 가끔씩 보이는 반항아적 기질이 차밍 포인트.
과거에 대한 기억때문인지 맞으면 맞았지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최대한 폭력으로부터 멀어지려 한다.



황재민

(26세, 청소의 요정 직원)

대대로 학자 집안의 돌연변이 같은 아들로 연기자가 꿈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쫓겨나 청소의 요정에서 일하며 단역 알바를 전전하는 중. 때로는 그 꿈이 재민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힘겹게 만들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 당당하고, 꿈이 있어 유쾌한 청춘임을 몸소 보여주는 캐릭터.



이영식

(20세, 청소의 요정 직원)

사랑이 하고 싶은 연애고자, 모태솔로, 씨름소년.
짜사랑 중인 여자애가 '청소의 요정'의 동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여 영식은 청소의 요정에 들어감.
김동현이 누구냐! 슬그머니 등장한 동현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점차 동현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알게 되고 '이 분은 라이벌이 아니라 형님으로 모셔야 할 남자다.' 다짐.
영식은 동현의 밑에서 카리스마를 배우기로 한다. 현재, 카리스마(동현)와 연애기술(재민) 복수전공 중이다.





인물소개

*최군의 환자들



환자 1. 닥터, 백

(의사 인척 하는 환자)



환자 2. 나공주

(귀여운 스토커에 망상장애까지)



환자 3. 왕보살

(신기 떨어져 우울증이 온 점쟁이)

자기가 의사이고 최군이 환자라고 믿고 있다.
 오솔이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최군을 정신병자로 오해하기도 한다.
 실제로 어느 의원에서 몇 년 동안 진료를 보다가 고발당한 적도 있다.
 의대를 지망하던 학생이었다.
 똑똑하고 총명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최군과 웨딩마치까지 끝낸 여자.
 신혼여행은 몰디브였다고 한다. 우리의 모히또를 기억하지 못하냐며 최군을 다그치기도.
 최군을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오솔이와 왕보살을 최군의 내연녀라고 생각하고
 가끔씩 머리끄덩이를 잡아채기도 하는 괴팍함이 숨어 있는 여자.

분명 오솔에게 올해 기운이 좋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신기가 점점 떨어지는지
 오솔에겐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신기가 떨어져가니 무기력과 우울증이 도져
 최군을 찾아온다. 매화에겐 진정한 남자는 멀리 있지 않다며 곁에서 찾으라 하고
 재민에겐 올해 데뷔 하겠다며 헛된 꿈을 심어주는.
 신기가 허언증이 되어 버린 지 오래지만 가끔 기가 막히게 뭔가를 맞출 때도 있다.





주요 품목
Sponsorship
Package Guide



Sponsorship Package Guide



Main Sponsorship Pkg.

콘텐츠 내 간접, 가상광고부터 제작지원, 전회차 중CM을 포함한 드라마 방영기간 내 약 500회의 일반광고 노출을 제공하여 콘텐츠와 연계된 모든 광고상품에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드라마 메인 스폰서십 패키지

[간접광고]

단순노출(Lv.1) PPL 2회
에피소드(Lv.2) PPL 2회

[가상광고]

아웃트로 범퍼 가상광고
전회차 제공
(총 16회)

[제작지원]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첫번째 노출 개런티
(총 16회)

[일반광고]

전회차 중CM/PIB(각 16회)
전후 CM 32회
기타프로그램 440회
(총 500회)

Media Value
16억 원

10억 원 (VAT별도)





Sponsorship Package Guide

차량 품목 Pkg.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차량 노출에 대해 통간접 노출
- 마케팅 이슈가 있는 차량에 대한 노출 및 에피소드 연출 가능
- 남자주인공(선결 役)이 타는 고급세단 및 청소업체 '청소의 요정'의 업무용 벤(스타렉스 급) 제공 필요
-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총 16회)



[품위있는 그녀X볼보, 청춘시대2X기아 집행 사례]



- 전회차 통간접 차량 노출
- 에피소드 PPL 2회
- 전회차 제작지원바

1억 원(VAT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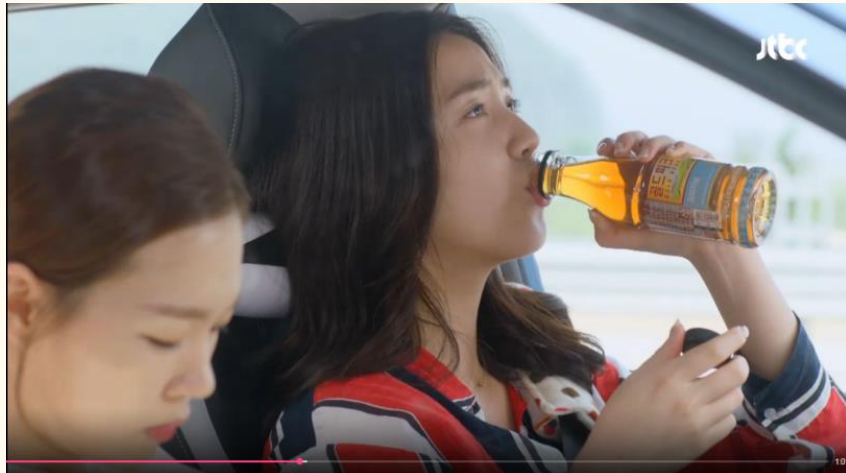




Sponsorship Package Guide

식음료 품목 Pkg.

- 협찬사 브랜드가 소구하는 방향성에 맞춘 상황 연출 협의 가능.(수분충전, 답답할 때 등)
- 청소업체 및 집안 곳곳에 식품 배치 및 시식/음용 노출.
- 전화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청춘시대2X코카콜라 골드피크 집행 사례]



- 에피소드 PPL 1회
- 단순 음용 PPL 2회
- 전화차 제작지원바

1억 원(VAT별도)





Sponsorship Tool Guide



1. 단순 / 기능 PPL

드라마 내 제품 비치 통한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부터
 제품의 사용/음용/착장 등의 연출을 통한 제품 기능 노출 제공



[힘센여자 도봉순_토레타 기능 PPL 사례]



[맨투맨_제이준/티파니 단순 PPL 사례]

1회 **2,000~4,000만원**(VAT별도)





2. 에피소드 PPL

드라마 스토리 단계에서 극중 주요 상황을 제품 음용/사용, 매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여
협찬사 니즈에 맞는 스토리와 임팩트 있는 브랜드 노출 제공



[맨투맨_놀부 부대찌개 에피소드 PPL 사례]

1회 **4,000만원** (VAT별도)





3. 제작지원바

몰입도 및 도달율이 가장 높은 드라마 엔딩 장면에서 브랜드 로고 직접 노출 제공



[힘센여자 도봉순_탐앤탐스 커피 제작지원바 사례]



[맨투맨_제이준 제작지원바 사례]

1회 **500만원**(VAT별도)





4. 가상광고

드라마 시작 또는 엔딩 시점에 CG를 활용한 영상 광고를 화면 위로 노출
 모션그래픽, 프레임 가상광고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인 브랜드 및 메시지 전달(노출시간 7초, 무빙 소재 가능)



[힘센여자 도봉순 에필로그 프레임 가상광고 사례]



[맨투맨 에필로그 아웃트로 범퍼 가상광고 사례]

1회 **2,000만원** (VAT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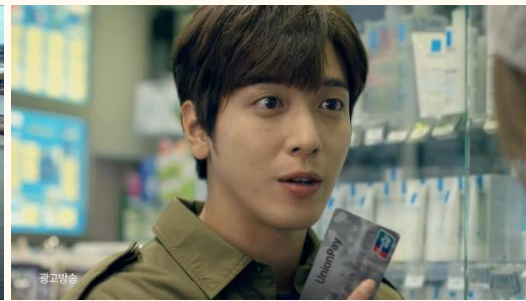
*전회차/반회차 판매 가능(단가 별도 협의)





5. 풋티지/맞춤형 광고

드라마 내 진행된 간접광고 풋티지 활용 또는 별도 촬영을 진행하여 브랜드 맞춤형 광고 제작
 드라마 전후 CM으로 집행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방위적 브랜드 노출 가능



[더패키지X유니온페이 풋티지 광고 집행 사례]

별도 협의





- 문의 -
JTBC미디어컴 마케팅솔루션 1팀
오승환 대리 02-751-6731

*출처 : 웹툰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중